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 문제

김경동*

올해로 한국의 제도사회학이 회갑을 맞는다. 일제시대에도 소수의 사회학자가 한 두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했었고 사회학개론 저서도 발간한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등교육의 제도 틀 안에서 사회학이 독립학문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역시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하면서 정식으로 사회학과를 개설한 때라는 말이다. 이순(耳順)의 연륜이면 한국사회학도 이제는 한 번 쯤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성찰할만한 위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한 성찰의 토대 위에 21세기를 꾸려나갈 앞날의 세대가 한국사회학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지에 대한 담론을 전개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화두는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추고 한 사회학자 개인의 학문적 편력을 사회변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되짚어보면서 그간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려는 에세이라 할 수 있지 엄격한 의미의 학술연구논문이 아니다. 아이덴티티라면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에 임할 수 있다. 하나는 현상의 검토다. 지금까지 한국사회학이 생성변화 해온 모습을 어떤 틀로써 조망할 때 떠오르는 일정한 형태의 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당위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이 서야 할 위치와 갖추어야 할 태세를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미래의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한국사회학의 모습을 검토하는 분석틀에서는 1) 역사적 전개, 2) 연구 분야별 관심주제의 변천, 3) 메타사회학적 특성의 역학, 4) 이념적 성향의 추세, 그리고 5) 교육의 현실 등을 주로 다룰 수 있다. 이어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kdkim6405@hanmail.net

서 앞날을 겨냥한 당위 내지 지향성 차원의 담론에서는 1) 한국사회학의 한국적 아이덴티티, 2) 메타이론적 성격, 3) 이념적 지향 및 4) 미래지향적 교육의 쟁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는 세계 속의 한국사회학이라는 문제가 위 두 차원의 논의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담론이 될 것으로 본다.

1. 현상으로 본 한국사회학

1) 세대별 역사의 흐름

역사의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를 논할 때 한 가지 유용한 접근은 세대별 검토가 될 것이다. 이때 세대구획은 주로 교수진의 구성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는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이 맞물려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우선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나 자신은 한국사회학 제3세대에 속하지만 동시에 사회학의 발전과정이라는 역사적 의미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신제1세대라고 할만하다. 우선 내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때는 한국전쟁의 잣더미를 딛고 우리사회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1955년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회학과 인연을 맺은 지 만 51년이 되는 셈이다. 그 사이에 사회도 엄청난 격변을 겪어 왔고 그 속에서 한국사회학도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변화의 단순한 서술보다 변화의 성격규명이 주관심사다.

민족 광복초기의 혼란 속에서 미군정 아래 처음으로 학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후 한국사회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일정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대학의 체제를 일본식에서 미국식과 절충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그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이끌어 갈 인적 구성도 결정되었다. 가령, 일본에서 정식으로 사회학을 전공한 변시민, 양희수, 이만갑 교수, 미국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헥경 선생, 그리고 일본에서 역사 및 사회학을 전

공한 이상백 교수와 경제학을 공부한 최문환 교수 등이 초기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인연을 맺은 제1세대를 이루었다. 이 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어 교수로 진출한 제2세대는 이근수, 이해영, 황성모 교수와 미국에서 사회학 석사를 받고 귀국한 이효재 교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에서 이만갑, 이해영 교수는 추후 미국에서 연구 내지 학위 과정을 밟았고, 황성모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우리세대는 위의 두 세대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제3세대다. 그러나 여기에 일종의 제2.5세대 층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제1세대의 제자지만 제2세대의 제자는 아니고, 우리들 제3세대의 견지에서는 분명 선배세대면서도 우리가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는 뜻에서 중간세대다. 여기에는 주낙원, 고영복, 김대환, 유시중, 윤중주, 이순구, 정철수, 최재석, 최흥기 등 여러 학자들이 속한다. 이 제2.5세대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최초로 석사과정을 마친 세대다. 그러니까 한국산 석사 제1세대가 된다.

우리들 1950년대 세대를 제3세대라 부르는 근거는 우리의 은사가 제1, 제2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외국에 유학하여 정식으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첫 번째 집단이라는 뜻에서 신제1세대라 구획하는 것이다. 이 집단에는 김일철, 윤덕중, 장운식, 정경균, 강신표, 김경동, 오인환, 임희섭, 정계훈, 한완상, 오갑환, 유의영, 이근무, 한상복, 김재운, 안계춘, 유재천, 권태환, 김석훈, 김영기, 박상태, 석현호, 양춘, 이문웅 등이 속한다. 이들과 동일 세대지만 국내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집단은 김채윤, 이강수, 권규식, 이상희(일본), 김현조, 이동원, 김영모, 김진균, 신용하, 신행철, 이광찬, 도홍렬, 이희경 등을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1950년대에 입학한 세대다. 이들 중 소수가 인류학,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분야로 진출하기도 했으나 일단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회학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세대라 할만하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단연 외국 박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할 수 있다. 그로부터 제4세대(혹은 신제2세대)는 1960년대에 입학한 이들과 그들의 제자세대가 1970년대 입학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1970년대 세대의 제자인 1980년대 중후반 입학세대가 이미 교수진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위시하여 전남,

전북 등 지방대학에 사회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서울과 지방의 다수 대학이 동참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학 전문인력의 양적 팽창이 촉발되어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사회학과 내지 전공과정이 설치된 대학이 40개에 근접하고 사회학회의 등록회원수는 700명을 넘겼다.

2) 연구 관심분야와 주제의 변천

한국사회학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은 역시 사회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연구분야와 주제다. 특히 이 항목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인 동시에 미국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전개해온 세계 사회학계의 변천을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의 제도적 기틀이 생긴 것은 1940년대 말이었지만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정식으로 연구 활동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 시기까지는 광복후의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학적인 논문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전후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대한정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의 진흥을 겨냥하여 개시한 근대화 내지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비로소 사회학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보기는 1) 미국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창설한 진단학회를 이상백 교수가 이끌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 2) 미국의 재정지원으로 설립한 한미재단의 연구비로 이만갑 교수가 한국농촌사회에 대한 현지조사 연구를 실시한 것, 3)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고헥경, 이만갑, 이효재, 이해영 교수 등이 서울시와 농촌지역의 가족에 대한 경험적 조사(survey)를 최초로 시도한 것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나도 학생으로, 조교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가 주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는 역시 미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인구연구소를 세우고 인구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개시하였다. 당시에는 인구와 가족계획이 주요 국가적 이슈였으므로 사회학 뿐 아니라 보건학 분야와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 등에서 이 방면의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요는,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60년대에는 한국사회학계의 주된 연구관심사가 농촌, 가족, 인구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1960년대의 사회과학계를 석권하는 세계적인 추세의 영향 아래 마침 경제개발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던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근대화의 화두가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1970년대로 접어들면 서방의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계를 풍미한 신탁스주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 닥쳤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연원한 종속이론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이 전세계를 강타한 시기였으므로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밀려왔고 1980년대까지 깊은 흔적을 남겼다. 국내의 정치상황으로 말미암아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이 격화하는 시기였고 따라서 젊은 사회학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종속적 개발, 노동, 계층 및 사회운동으로 집중되었고 민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 무렵 내게는 특기할만한 두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내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를 맡아 있었던 1985년 여름에 아민(Samir Amin),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 등 당시의 친북 학자, 오도넬(Guillermo O'Donnell), 에반스(Peter Evans), 체이스-던(Christopher Chase-Dunn) 등 대표적 종속이론가들을 포함하여 십여명의 외국학자들이 참가하는 종속이론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청와대와 안기부(현 국정원)의 양해를 구하느라 상당한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이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친북좌파 학자인 아민의 공개강연회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예정한 바로 전날 밤중에 총장으로부터 긴급전화가 걸려 와서 다음날 강연회를 캠퍼스에서 가질 수 없으니 장소를 호텔 회의장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해왔던 일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워싱턴 소재 월슨센터의 펠로우(fellow)로 연구를 하던 1987년 봄 특강 차 하버드대학에 들렀을 때 당시 사회학과 학과장을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 해 한국에서 하버드 사회학과에 응모한 학생이 5명이었는데 그 다섯 사람 모두가 노동 및 경제사회학 전공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학생운동이 좌경화하고 주사파가 운동을 주도하던 198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199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에도 젊은 사회학도들의 관심사는 맑스주의 사회학으로 쏠려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때에 가서야 맑스주의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대략 1970년대부터 사회학의 토착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해진 현상이다. 이와 같은 역사사회학에 대한 관심에는 그 나름의 뿌리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설립자인 이상백, 최문환 두 교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분들의 학풍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는 데에는 신용하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실은 최흥기, 김채윤 교수와 연세대의 박영신 교수 등도 이 방면의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 2천년대에 들어 사회학 연구 분야는 매우 다원화하였다. 이미 정보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 과학기술 등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사회학회와 학회지 등에 발표하는 논문의 주제도 매우 다양해졌다. 내가 1980년대 초 일본사회학회의 초청으로 논문 발표를 위해 동경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일본사회학회의 회원이 2천명을 넘었고 와세다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수십개의 분과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학회의 회원은 그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고 학회의 발표분과래야 겨우 10개도 채우지 못했던 형편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학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분과에서 발표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대략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각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가족, 인구, 농촌, 도시, 사회심리학 분야의 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특정 분야로 편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요즘은 네트워크 분석 등을 주로 하는 경제사회학, 조직사회학 등 방면의 전공자와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3) 메타사회학적 특성의 변화

사회학적 연구의 성격을 규명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역시 사회학의 인식론적 기초와 이론적 지향을 규정하는 메타이론적 특성을 밝히는 일이

다. 한국사회학은 초기의 인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당시 독일학풍의 영향이 컸던 일본의 사회학적 풍조를 직수입한 바탕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립서울대학교를 미군정하에 설립했고 학제를 미국식으로 절충하여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이 스며들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접변의 물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당초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이 미국사회학계의 주류를 반영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특히 전쟁 직후 이만갑, 이해영 두 교수가 미국에서 각기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대학에서 조사방법과 인류학 강좌를 개시한 것과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효재 교수가 출강하여 사회심리학을 가르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보기다.

앞에서 규정한 제3세대 혹은 신제1세대에 해당하는 1950년대 우리들 세대가 바로 이들의 강의를 처음으로 수강한 집단이며 그 영향 아래 미국으로 유학하여 정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사회학의 주류는 단연 인식론에서는 신실증주의 경험적 사회학이었고 이론에서는 파슨즈(Talcott Parsons)가 이끄는 구조기능주의였다. 나 자신도 문리과대학에 재학하던 시절(1955~59년) 구드와 해트(Goode and Hatt) 공저의 《사회조사방법》과 파슨즈의 《사회적 행위이론》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열심히 탐독했었다. 그 무렵 제2.5세대에 속했던 고영복, 윤종주 등은 뒤르켐(E. Durkheim)과 쏘로킨(P. Sorokin)을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고 최재석은 계룡산 신도안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이들의 연구가 그 후 한국사회학의 주류를 이루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1960년대 초로 접어들면서 이화여대, 고려대, 경북대 등에 사회학과를 개설하였고 그 중 이화대학은 고헤경, 이효재, 최신덕, 고대에는 홍승직 등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진을 갖추었으므로 여기서도 미국사회학의 주류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다만 이미 그 시기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안에서는 일종의 학문적 분과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만갑, 이해영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경험적 사회학을 추구하는 신세대와 최문환 교수와 추후에는 황성모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사회학 및 유럽사회학을 강조하는 신세대가 나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백 교수는 자신의 학문에서 역사학적 배경이 현저하면서도 당시 주류를 이루던 경험적 사회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이것이 현재에 이르

는 한국사회과학의 주요 학문적 분과의 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르면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미국사회학 내부에서 대두한 새로운 비판적 사회학이 우리나라에도 강한 충격을 남겼다. 거기에 신탁스주의 비판사회학,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종속이론과 세계체계론 같은 좌파사회학 내지 급진적 사회학과 아울러 또 한편으로는 인간주의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적 사회학, 해석(학)적 사회학 등이 문혀 들어왔다. 이들은 이념적으로는 상이했으나 대체로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인식론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 국내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경험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구소련 중심의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일단 국내의 사회학 전반의 이념화는 상당 정도 잠자게 되고 다시 미국주도의 뿌리 깊은 경험적 사회학이 주류의 위치를 회복하는 기회가 온 셈이다. 여기에 정보화라는 기술혁신에 힘입은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그리고 전지구적인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신장 등은 사회학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회학도 이에 영향을 받아 주로 경제·과학·정보사회학과 시민사회 등의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정교한 계량적 방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자본론을 등에 업고 한국사회의 특유한 연고를 분석하는 방식의 접근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토착화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교적 전통을 중심으로 동방사상의 사회학적 천착이라는 작업이 1980년대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확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론사회학 분야에서도 토착화가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종래 토착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역사사회학적 한국사회 연구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메타사회학적 이론과 인식론적 수준에서 ‘한국적’ 혹은 ‘한국화’ 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는 취약점을 간과할 수 없다.

4) 이념적 성향의 부침

이미 앞의 논의에서 간헐적인 언급으로 암시를 한 바 있지만, 한국사회학은 한

국사회의 정치이념적 성격과 깊은 연관 속에서 변천과 반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특이하다. 초기부터 사실은 미국사회학의 일방적인 도입을 둘러싼 긴장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하였거니와, 당시의 이념적 성향에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크게 자리하였다. 이는 4·19를 기점으로 하는 한국정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거세게 몰아닥친 미국사회학 일변도의 물결에 대해서 당시 강하게 일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정서가 불만을 표명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일종의 분파적 성향이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언급을 한 것도 이념적 지향과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서적 간극은 그 후에도 소위 미국유향파와 국내파 사회학자들 사이에 은연중 혹은 가끔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념적 지향이 가장 뚜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대의 좌파 급진적 사회학의 확산에서 볼 수 있다. 이 또한 국제적인 사회학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1970년대부터 도입된 미국과 유럽의 신맑스주의 사회학이 이미 한국의 운동권에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내정치권의 특징과 그에 저항하는 정치사회운동의 특성도 사회학의 성격형성에 개재한 셈이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의 화두가 민주·민족으로 집약되었다면, 1980년대 급진적 이념의 채택과 더불어 이제는 민주·민족·민중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노골적으로 저속한 맑스주의와 주체사상에 심취한 학생운동, 노동운동 및 일부 기독교 내부의 민중신학과 같은 움직임들을 반영하듯 사회학 안에서도 민중사회학, 사회구성체 논쟁과 같은 이데올로기 색채가 강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학 내부에서도 이념적 논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운동권 출신이 정계진출을 시작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갈수록 노골적인 좌파 운동권의 체제진입이 제도적으로 활발해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풍토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사회에도 이념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표면화했으므로 사회학도 이러한 일반적 추세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학계에서 이념적 지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이 예사로워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학계 내부에서 이념 문제 자체가 본격적으로 학술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사회학계에서 정계에 진출하여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

도가 눈에 띄는 편이다.

5) 사회학 교육의 현실

학문의 연륜이 60년이면 짧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 기간에 한국사회학은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는 학과의 수량적 증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 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의 수도 증가했을 뿐더러 그들의 학문적 자질도 크게 향상하였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대학에는 국내외의 우수·명문 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신진 학자들이 진을 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에 걸쳐 사회학과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각계에서 두드러진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국가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1990년대 후반의 경제적 난국을 거치면서 고등교육 정책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그 맥락에서 사회학과의 위상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 소위 학부제 도입 과정에서 사회학과가 독자적인 전공학문으로서 제도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지방대학과 일부 사학의 사회학과가 학생확보라는 기초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학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학생 확보의 차원을 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학 교육의 방향,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요약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간극이라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사회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주로 이념적인 것으로 치우치던 1980년대 신맑스주의가 창궐하던 때에 학생들이 이 방면의 교육을 받고 싶어 했지만 교수진에서는 이 분야로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나 전공하는 이가 없어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였다. 다른 한 가지는 주로 현실적 수요와 관계가 있다. 특히 지방의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이 가장 긴급한 요구사항인 데 비해서 사회학과 교수진이 제공하는 교육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구름 잡는 이야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2. 미래지향적 한국사회학의 과제

일단 주마간산적으로 살펴본 한국사회학의 과거와 현재를 배경으로 이제는 앞으로 전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선진적인 국가사회로 발전하고자 할 때 한국사회학은 어떤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자면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1) 한국사회학의 한국적 아이덴티티

이 시대에 한국사회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개인적인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다. 여기서 굳이 외래어를 쓰는 이유는 이 말의 번역어로 흔히 쓰는 정체성이나 정체라는 말은 아이덴티티의 본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정체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꼭 '성' (性)자를 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관행이다. 여하간에 아이덴티티는 사람이나 사물을 확인해주는 정체뿐만 아니라 동일시, 자기 동일성, 독자성과 같이 객관적으로는 불변의 요소를 내포하는 독자적인 특성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스스로 동질성을 인식하고 동일시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질문에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성격의 서술만이 아니라 한국사회학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동일시하는 특성도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왜 하필이면 이 문제를 현시점에서 제기하는가? 이는 나의 '선택적 근대화' (selective modernization) 이론이 주창하는 '대안적 근대성' (alternative modernity)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이라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성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¹⁾ 이 자리에서 선택적 근대화와 대안적 근대성

1) 이 선택적 근대화론과 대안적 근대성론은 최근 내가 발표한 논문에서 제기한 개념들이다. Kim Kyong-Dong, "Alternative Modernity Emerging *via* Selective Modernization: The Case of the two Koreas." paper presented at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cal Sciences, July 3-9, 2005, Sydney, Australia 참조.

의 이론을 자세히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사회학의 생성변화 과정을 이 관점에서 풀이할 때 갖는 의미만 밝히고자 한다.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처음부터 서방사회의 근대화가 자아낸 문화적 산물이다. 그것이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온 과정은 거의 서방문화의 일방적인 도입을 내포하는 '기울어진 문화접변' (tilted acculturation)의 일환이었다. 일단 서방의 사회학을 받아들인 사회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를 수용, 변형, 토착화하는 '선택적 근대화'의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 등장한 각 사회의 독자적인 사회학이 바로 그 나라의 전반적인 '대안적 근대성'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선택성과 대안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나라든 근대화의 물결에 접한 때로부터 아무리 정치경제적 약소국가라 해도 자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틀과 문화적 자원의 바탕 위에 제 나름의 적응적 변동을 하게 마련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선택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항상 기존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일단은 대안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근대화 이론과 근대성 논의에서 놓친 점은 모든 사회의 대안적 근대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각 사회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탐색하고 주창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자존심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서방의 근대화 자체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서방우위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반응이며 특히 동방에서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의 왜곡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도 이와 같은 문맥에서 새로운 탐구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아이덴티티 추구의 노력은 그동안 토착화의 명목으로 시도해 온 것이고 일부 비서방권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안적 담론' (alternative discourses)의 창출이라 이름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 국가차원에서 조국근대화의 기치가 나부끼던 시기부터 근대화 담론에서 근대화 자체의 토착화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사회과학의 토착화를 쟁점화하는 시도는 1970년대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토착화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그다지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였고 다만 개인적으로나 일부 집합적 수준에서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정도다. 개인적으로 나는 1980년 초부터 내 나름으로 사회학의 토착화 작업에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최근(2005)에는 한국행정학회의 학술대회가 행정학의 한국화라

는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사회과학의 한국화가 지니는 학문적 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사회학계에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동방사상의 재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 학회를 결성하고 잡지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는 집단도 있고 이론사회학의 차원에서 토착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토착화된 한국화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이를 예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작업을 잠시 소개한다. 내가 1962년 최초의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직후 첫 번째 연구과제로 삼았던 것이 '한국인의 유교가치관 연구'였다. 이상백 선생님이 이끌고 있던 진단학회에서 미국의 하버드-엔지니어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해주었던 점도 주목이 필요하다. 당시 상백 선생께서는 내가 경국대전과 향약 등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 것보다는 유교 가치관조사를 위한 태도척도를 구성해서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와 소학(小學), 일제 수신 교과서 및 광복후 공민 교과서의 내용분석에 더 큰 흥미를 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적 사회학의 도입에 민감했다는 말이다. 어쨌든 나는 한국의 사회학은 당연히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뒤에는 1970년대에 걸친 미국의 교수생활을 청산하고 영구 귀국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두 가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첫째는 유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고전사상에서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론적 관점과 개념을 검색하여 새로운 이론의 정립과 한국사회변동의 설명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역경(易經)의 변동론, 특히 음양변증법의 논리, 기(氣)와 같은 개념 등을 새로이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특히 1986~7년 워싱턴 소재 우드로우 윌슨 국제연구소에서 연구할 때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을 시도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전통적 문화유산 속에 있는 풍부한 지적자원을 활용하는 일이 토착화·대안적 담론 정립의 한 축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재구성하여 한국사회의 조직원리와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분석틀을 형성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한(恨), 연고, 인정, 눈치, 명분, 기싸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이로부터 연고주의, 인정주의, 감성주의, 집합주의, 위계서열적 권위주의, 의례적 형식주의 같은 조직원리를 도출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사실 요즘 한국사회의 연고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 같은 연구작업이 활발한데 이 연고주의 조직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1980년대 초에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다만 이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더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후로 이런 요소들을 한국사회의 변동, 갈등 및 노사관계 등에 실제로 적용한 글들을 주로 외국어로 해외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주로 한국사회에 고유한 개념들로 한국사회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토착화·대안적 담론의 또 다른 축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점을 고집할 필요 없이 국제적인 이론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이론적 설명 자체가 기존의 어느 서방학자도 제창하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라면 그것도 한국사회학의 이론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아직은 비교적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런 식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은 더욱 체계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는 보편성의 확보다. 자칫 토착화 논의가 폐쇄적인 국수주의로 흐를 소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또 하나의 자민족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문화적 자원으로 우리사회를 해석,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설명과 해석의 대상자들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론이나 해석이 다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보편적 이론의 지위를 얻게 된다. 비록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설명방식과 해석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런 접근이면 자기 사회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단어를 적용할 때 유사한 해석과 설명이 적절성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올 때 보편적 이론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서방의 사회학이 당대의 서방중심주의로 말미암아 마치 보편적 설명의 체계를 갖춘 것인 양 인식되어 온 것은 일방적이고 불균등한 근대화 자체의 성격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이론과 방법론으로 자신들의 사회를 설명·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를 마치 모든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보편주의 허위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을 서방학계가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 대안적 근대성의 수용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 이론이 다른 문화에서도 보편성을 확보하는 일은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사회학의 세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의 설명방식을 외국

에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근자에는 외국의 우수 학술지에 한국 학자들의 발표가 전보다 더 자주 눈에 뜨인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서방의 이론과 방법론의 틀 안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는 수준이다. 그 자체를 부정할 까닭은 전혀 없다. 우리도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겨룰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틀로써 우리사회를 설명·해석하는 보기를 외국에도 더 널리 알려야 한다. 거기서 다른 사회의 호응을 얻는 순간부터 한국사회학은 세계화하고 보편성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생긴다.

그러나 이 과업에서 핵심은 아이덴티티다. 한국사회학이 과연 어떤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자 하며 실지로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회학계의 구성원들은 어떤 동일시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직은 우리 학계도 서방의 이론과 방법론을 그대로 직수입하여 우리사회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런 접근의 한계는 이미 여러 각도로 실감하였다. 그런 외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맹목적 수용을 넘어 우리의 독자적 선택이 작동할 여지는 있다.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서부터 한국사회학의 토착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우리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창안하고 개발하는 작업이 진정한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향한 노력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와 동참이 있을 때 아이덴티티는 더욱 확실해진다. 지면의 제한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전개할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적어도 진지한 토론의 실마리로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2) 한국사회학의 메타이론 탐색

여기서 메타이론이란 방법론과 이론의 성격에 관련되는 사고의 준거틀을 일컫는다. 한국사회학이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최종단계는 바로 사회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결정하는 메타이론의 정립이다. 한국사회기 때문에 독특한 방법론적 패러다임과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한국에 특유한 이론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동시에 이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수반해야 한다. 위의 토착화·한국화·대안적 담론의 논의에서 일부 언급한 대로 우리문화

의 자원에서 발굴·적용하는 접근이 그러한 새로운 메타이론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의 세계 속에서 통용하는 개념과 설명들을 사회학적으로 재정립하는 과제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작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방의 기존 메타이론 내지 패러다임을 전부 배타적으로 제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일정 수준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을 요구하며 나아가 우리의 독창적인 이론정립에 이르고자 한다는 말이다. 무조건 직수입하는 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었음을 경험한 터에 선별적인 채용과 토착화는 불가피하다. 그러한 선택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독자적 해안이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추세는 요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학의 메타이론을 지배하는 조류가 여전히 실증적 과학을 표방하는 경험주의적이고 계량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수량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무래도 거시적인 자료보다는 미시적인 자료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따라서 이들 자료로써 평가하는 이론들도 미시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변수들로 구성된 명제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사회학적 연구의 발전은 거시적인 쟁점의 설명을 추구하는 거대이론이나 현실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인 연구보다는 기술적으로 첨단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가설적 명제의 검증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실 오귀스트 콩트가 150년 전에 과감하게 제창한 실증주의 사회학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이룩한 연구성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그와 같이 기술적으로 정교한 연구들이 인간의 문제를 옳게 이해하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통찰을 얼마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정도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학이 한국사회에 유관적합한(relevant)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중심의 사회학의 테두리를 과감히 벗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을 가능케 하는 종류의 사회학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학문의 제도적 권력이 미국중심의 세계 사회학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심에서 주변의 사회학 까지도 평가하며 주도하려는 제도적 틀이 존속하는 한 용이한 과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미국중

심의 패러다임에서 이탈하는 순간 고립되기가 일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적 종속현상이 학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한 가지 길은 바로 학문의 문화적 독립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는 역설에서 찾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사회학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오히려 종속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큰 반면에, 문화적으로 우리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면 적어도 그러한 종속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점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민족이라는 데 있다. 동방의 무궁무진한 문화적 보고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그 지식과 사상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의 문화적 종속을 탈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로 연결되는 고리라고 할 것이다.

3) 이념적 지향의 문제

사회학이 비록 과학을 표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가치관의 편차와 이념적 차이가 개재한다. 하지만 지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단도직입으로 말하려니와, 한국사회학의 이념적 지향은 사회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극제 정도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념이 지나치게 승한 상태는 학문의 발전 자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다. 지난 60년의 역사에서 우리 사회학이 이념적 편파성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학문적인 성숙도는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이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과거는 성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또 다시 지난날의 과오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분단 60년의 뼈아픈 역사는 적어도 이념면에서 한 가지 특이한 기회를 제공하는 면이 있다. 역시 서방세계의 근대화가 자아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가 무너진 오늘, 내일의 인류가 누릴 사회의 틀로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상하고자 할 때 우리민족은 불행하게도 겪어야

했던 분단 속의 이념적 대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향유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동방 특유의 음양변증법적 종합을 겨냥한 체제재구성 작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계 인류역사에 크나큰 공헌을 남길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도 이와 같은 작업에서 뚜렷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에는 상당한 지혜와 노력과 인내심이 필수적이다.

4) 사회학 교육의 과제

사회학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배경에는 상당 정도 이념적 지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혈기 왕성하고 정의감이 불타는 젊은 학도들에게는 거창한 유토피아적인 그림이 가슴에 쉽게 와 닿는 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학 교육은 그러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요구사항으로서 학생들의 취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사회학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현실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된다.

그 배경에는 미국중심의 현대사회학의 메타이론과 패러다임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시간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고급사회심리방법론 세미나 강의를 수강한 일이 있다. 이 강좌는 알고 봤더니 6~7명 정도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었고 학기 내내 자기들 논문작업에서 봉착하는 아주 미세한 분석기법 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치고 있었다. 수강을 취소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점에서 나는 교수에게 항의성 발언을 신청하였다. 나는 막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우리에게 너무도 절박한 온갖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는 터에 그러한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사회학 공부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당신네들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도대체 이런 주제가 나와 나의 조국의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실망이 크다는 요지의 발언을 정색을 하고 한 것이다. 물론 교수는 싱긋이 웃었고 다른 학생들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병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리고 심지어 통계자료를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있을 때는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바흐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회심리학 교수도 보았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자기가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정하면 그것이 아무리 지엽적이고 부질없어 보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은 채 결눈질 할 필요 없이 자기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령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학에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세력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전국사회학대회 석상에서 맑스주의 분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젊은 학도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기조연설중인 학회장의 마이크를 탈취하는 소동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할 정도였다. 실은 앞에서 언급한 철저히 실증주의자였던 그 사회심리학방법론 교수의 필독 문헌목록에도 밀즈(C. Wright 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수록되어 있었고, 나는 그 책을 탐독했을 뿐더러 귀국 후에는 그 일부를 번역하여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적 요구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학은 서방에서 무엇을 배웠든지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독자적 선택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학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모두가 서울대학교를 모델로 삼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가령 서울대학교 정도의 대학이라면 고도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소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설정해도 좋다. 거기서 제공하는 교육은 가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석사과정까지만 두고 주로 교육에 치중하는 4년제 대학이다. 이런 대학은 대학원에서도 앞으로 다른 연구중심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학생군과 취업전선으로 진출할 학생군으로 나누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학원 과정 없이 4년의 대학과정에서 교육에 집중하는 곳이다. 이런 대학의 주목표는 학생들의 취업이고 부수적으로 일부 소수 학생이 타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사회에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설치하는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이는 전적으

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고 또 야간 과정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만 이런 지역공동체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학의 분업체계에서는 사회학도 이에 맞추어 연구중심의 순수학술 교육, 순수학문과 응용을 겸비한 교육, 취업에 직결되는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는 교양교육의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다원화해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구성부터 교육내용의 조정은 물론 교육 방법까지도 그 체제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에 속한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 정도의 응용분야와 연계하여 현실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능(skill)을 양성하는 기능(function)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의 처지와 그가 진학한 대학의 성격 그리고 사회적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구상하여 대학과 지역과 국가와 개개인의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체제에서는 교수진의 성격도 달라야 하고 교수에 대한 평가 척도 역시 다양화하는 것이 옳다. 모든 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의 고도한 이론과 내용을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나 수요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행의 교육태도를 바꾸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이 점을 고려한 교수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예를 한 두 가지 소개한다. 1970~80년대 미국이 경제불황으로 신음할 때 대학에도 위기가 닥쳐왔다. 사회학과의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곳이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과 듀크대학이었다. 전자에서는 사회학과를 실지로 없애야 했던 반면 후자에서는 사회학과 자체의 구조조정, 특히 교과과정의 획기적 개편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후로 수강 및 전공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듀크대학 사회학과의 교과과정 개편에는 주로 경영대학원과 밀접한 연계 아래 실생활과 직결되는 교과목을 다수 도입하는 과감한 조처를 포함하였다. 이런 예들은 우리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3. 맺는 생각

한국사회학의 역사와 거의 함께 살아온 나의 회고를 곁들여 가벼운 글을 쓰고

자 한 것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장황해졌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지구화의 물결이 높게 밀어닥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서 사회학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자 할 때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한 번은 제대로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학은 학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기여가 반드시 모두 긍정적이기만 했었던 지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사회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룬 내용 정도로서 충분하다 하기는 어렵고 본격적인 논의가 따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학이라는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에서 짚어볼만한 내용을 주로 세대별 시기구분으로 본 역사적 배경, 시대별로 변해온 연구 분야와 주제의 특징, 메타사회학적인 이론과 방법론의 패러다임, 이념적 성향의 부침과 사회학 교육의 현주소 등에다 한정시켰다. 서방의 근대화 선발국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역사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짧기만 하지도 않은 60년 동안 한국사회학은 어느 사회 못지않게 커다란 부침과 기복을 경험하였다. 것처럼 복잡한 과거를 배경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향한 한국사회학의 진로를 시사하고자 할 때 그 일이 간단할 리가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한국사회학이 과연 무엇이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사회학계는 진지한 토론을 계속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바로 이와 같은 열린 가능성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이야말로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사회학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다양성’ 이것을 제거해 버린 사회학은 무미건조하고 쓸모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합의와 동일시를 가능케 하는 범위내의 아이덴티티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써 우리의 사회학이 다른 나라의 사회학과 구별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 최소한의 동일감을 자아내는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할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사회학계가 활발한 의견교환과 천착을 전개할 것을 기대한다.

